일본의 코듀로이 기대 이상의 호황을 보여

새해에도 희망을 걸어

일본에서는 코듀로이가 작년(2002년) 시즌(season : 성수기)에 보기 드문 호황을 보여, 금년 시즌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.

코듀로이 전문상사의 말에 의하면 작년 가을 · 겨울 상품은, 재작년 시즌보다 거래량이 줄 것으로 예상하였는데, 시즌의 끝물까지 상거래가 활발하여 수량 · 금액 모두 재작년 실적을 웃돌았다.

이 원인은 코듀로이에 대한 인기가 예상외로 높다는 소문이 항간에 돌았으며, 또한 중국산 코듀로이와 비교하여 “가치와 가격”이 뚜렷이 다르다는 점이 시장에 널리 인식되어, 일본산 코듀로이의 가치를 소비자들이 새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.

작년 11월 초순에도 유력한 진즈 · 메이커가 금년 가을 · 겨울용 상품으로 코듀로이의 리피트 · 오더(repeat order)를 내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.

이와 같은 상황에서 코듀로이는, 일본에서 생산된 제품뿐만 아니라 전문전인 산지(産地)나 상사 등이 갖고 있던 재고가 모두 소진된 것 같고, 그럴수록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. 다음 시즌에는 코듀로이가 포스트 · 데님(post · denim)이 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오가고 있으며, 이런 바람을 타고 컬러 · 코듀로이(color corduroy)의 인기가 올라갈 것 같은 기미가 있다. 특히 전 시즌에서는 진즈나 코듀로이가 모두 백색이 잘 팔렸다. 그러므로 금년 시즌에는 컬러 · 코듀로이가 잘 팔릴 차례라는 견해가 크며, 그 중에서도 흑색이 가장 앞장 설 것이라고 예상하는 관계자가 많다.

컬러 · 코듀로이가 가장 유력한 상품이 된다면 그럴수록 정선된 신상품이

요구된다. 그래서 산지마다의 도매상, 제직공장, 가공공장들은 벌써부터 많은 정성을 들여 퀄리티(quality)가 좋은 코듀로이를 생산하여야 한다고 긴장하고 있다.